

회원사 돌며 기업애로 파악

본회가 IMF 체제로 자금조달·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자업체의 애로과악에 나섰다.

본회는 이를 위해 이상원 상근부회장 등 임원으로 구성된 기업애로과악팀을 구성해 서울·경기·충청·전북·경북 등 전국에 산재한 주요 회원사를 방문, 기업들이 수출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요인을 파악하고 있다.

기업애로과악팀은 지금까지 세진전자·새한정기·삼보컴퓨터·성미전자·한국고텐시·삼화기연 등 총 20여개 회원사를 찾아 애로요인 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방문사의 경영자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과악한 사항을 본회에서 정리하여 대정부건의 및 본회 업무 추진에 반영키로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업체방문을 계속 추진키로 하였다.

퀄컴, CDMA 기술에 대한 추가 로얄티 요구

국내 제조업체, 공동 대응에 적극 나서

퀄컴의 CDMA 신기술에 대한 지나친 로얄티 추가 요구에 대해 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CDMA 이동전화 시스템 및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최근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주관으로 대책회의를 열었다.

업계는 회의에서 CDMA 이동전화의 기술이 현재의 IS-95(A)에서 새로운 기술방식인 IS-95(B)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소프트웨어(DMSS3000) 사용료로 퀄컴이 요구하고 있는 로얄티가 지나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해 전자산업진흥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동전화기술은 현재 차세대이동통신인 IMT-2000의 표준화가 마무리단계에 있고 앞으로 2~3년

후면 이의 상용화가 본격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이므로 많은 로얄티와 설비 및 개발비 등 소요 비용과 비교해 투자효과와 어려운 국내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바 사실, 퀄컴이 요구하고 있는 IS-95(B)로의 전환시, 부가서비스가 일부 개선된다는 정도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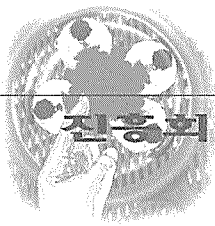
그러나 투자되어야 할 비용은 제조업체가 지불해야 할 추가 로얄티 외에도 이동전화사업자의 장비 및 소프트웨어가 상당부분 교체 또는 추가되어야 하고 총 1만개가 넘는 기지국의 부품도 일부 교체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IMF라는 외환위기로 인해 국가경제가 크게 어려운 현실에서 실제로 이용도 잘 되고 있지 않는 이동전화의 부가서비스를 다소 개선시키기 위해 대가로 막대한 외화를 투자함은 이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 전가된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손익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퀄컴은, 소프트웨어(DMSS3000) 사용조건으로 국내 제조업체에 대해서 현재의 기술료(매출액의 5.75% 수준) 이외에 '일시불 40만불과 새로운 칩(MSM3000) 1개당 2불씩' 또는 분납방식 등 단말기 1대당 약 2.5불의 추가 로얄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은 DMSS3000 외에도 최초 계약후의 추가 등록된 특허에 대해 업체별로 75만불 상당의 특허료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오고 있으며 우리 업계가 '97년까지 지불한 특허료만 해도 1억불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조업체는 IS-95(B)로의 전환에 대한 퀄컴의 과다한 요구에 적극 대응키로 함에 따라 한국전자산업진흥회를 통해 공동대응의 구체적 방법 등을 모색키 위해 각 기업별 공식 의견을 조사하는 한편 DMSS3000 소프트웨어 채택시의 효과 또한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퀄컴칩 이외의 다른 칩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정보통신산업 현황 및 당면 애로사항 회의

정보통신산업의 당면 애로사항과 EDCF 자금조기 재개 및 확대, 호주의 CDMA 이동전화 시스템 구축사업에 우리측 정부의 적극지원 등 정보통신 제반사항에 대해 지난 8월 3일 경제구조조정 기획단(대통령 비서실 산하) 회의실에서 대우통신·삼성전자·현대전자산업·LG정보통신 본회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신시스템에 대한 지원강화요망, 컴퓨터용 CPU에 대한 관세적용, 호주의 CDMA 이동전화시스템 구축사업의 우리 정부의 적극 지원을 요망하였다.

해외규격인증지원센터 설립, 중소기업체에 대한 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 국내 통신사업자의 투자확대 등 제안사항에 대하여 구조조정 기획단이 면밀히 검토후 반영되도록 추진키로 하였다.

구조조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관련 회의 개최

본회 가전산업부에서는 지난 8월 3일 본회 회의실에서 대우전자, 삼성전자, 현대전자 등이 참석하여 구조조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므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본회에서 관련사항을 면밀히 파악한 후 향후 추진사항을 협력키로 하였다.

PC 수출(기획) 담당부서장 회의 개최

본회 정보산업부에서는 지난 8월 5일 본회 회의실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대우통신, 멀티캡 및 관

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PC 수출(기획) 담당부서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PC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PC시장동향, PC 관련 자료 구독 등을 집중 논의하였으며, PC 수출(기획) 담당부서장 회의를 정례화하여 매월 개최키로 하였다.

행망·교육망용 PC 구매연기 취소 건의

본회에서는 PC의 내수활성화를 위해 2000년으로 1년간 연기된 교육정보화 기반구축사업을 계획대로 내년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였다.

정부가 IMF 사태에 따른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실습용 컴퓨터 보급사업을 2000년으로 연기하려는 것은 이해하나 이는 PC산업의 내수시장을 심화시켜 정보통신벤처기업과 PC 전문기업들의 도산위기를 도래하게 되며 생산의 80%를 내수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PC업계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 행정전산망과 교육망용 PC 조달 예산을 3/4분기 안에 조기 집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전자부품 수출 증대 방안 관련 회의

본회 및 전자부품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산업자원부 등 관련기관이 모여 지난 8월 12일 전자부품 수출 증대 방안에 대해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부품 수출 증대 방안과 관련 각 기관별로 중요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별 수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직접 현장조사하여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하였다.

전해콘덴서 표준화 회의 개최

본회 부품산업부에서는 지난 8월 19일 본회 회의실에서 삼화전기(주), 대우전자부품, 삼성전자공업(주), 삼성전기(주), 전자부품기술연구소 등이 참석하여 전해콘덴서 표준화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해콘덴서용 전극박(Al-Foil) 시험방

법 초안을 완료하고 일본 EIAJ의 규격을 국내에서는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항목별 데이터 값이 국내에서 적용되는 것과 다를 경우 차기회의시 제시하여 논의키로 하였으며 해설서 부분의 추가 보안을 하기로 하였다.

HFC 등 온실가스 저감방안 회의 개최

본회 가전산업부에서는 지난 8월 20일 본회 회의실에서 LG전자, 대우전자, 삼성전자 등이 참석하여 HFC 등 온실가스 저감방안에 대해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사별로 환경관련 추진 현황(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청정연료 대체 등) 및 계획을 조사, 본회에 제출키로 하였으며 온실가스 저감대책반을 구성운영키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전자업계가 자주적 저감대책선언을 추진키로 하였다.

예치금 반환업무개선 대책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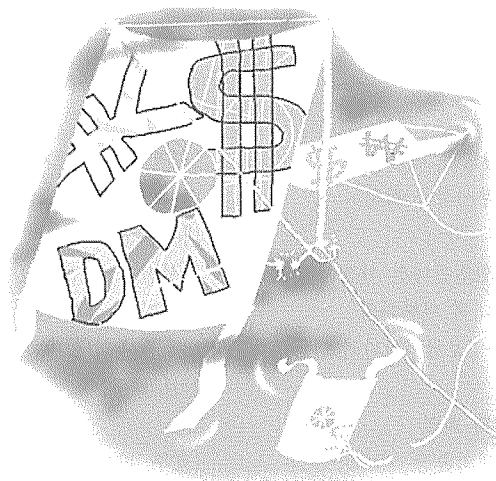
본회 가전산업부에서는 예치금 반환업무 개선을 위해 지난 8월 20일 본회 회의실에서 삼성전자, 대우전자, LG전자 등이 모여 관련회의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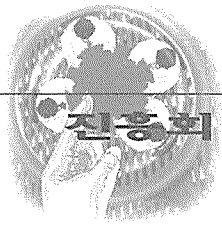
이날 회의에서는 예치금 반환상의 애로점(구서류 과다, 최종처리증빙요구, 지자체 물량 처리분 불반환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정리하여 [예치금 반환 업무지침] 개정을 건의키로 하였다.

행망용 PC 조달관련 담당부서장 회의 개최

본회 정보산업부에서는 지난 8월 20일 본회 회의실에서 삼성전자, LGIBM, 대우통신, 삼보컴퓨터, 멀티캡 등이 모여 행망용 PC 조달관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가 계약 연장에 따른 문제점과 상반기 계약된 물량의 조달공급 등 제반문제에 대해 조달청에 협조를 요청키로 하였다.





<<진흥회 8월 주요행사 및 회의>>

일 자	행사 및 회의명	참가업체 및 장소	담당부서
8. 3	구조조정에 따른 공공거래법 관련 회의	삼성전자, 대우전자, 현대전자 관련 임직원	가전산업부
8. 3	자기미디어협회 수출부서장 회의	코오롱 등 5개사 (본회 회의실)	부품산업부
8. 3	정보통신업계 당면어로 개선건의 관련 회의	LG정보통신, 대우통신, 삼성전자, 현대전자산업	정보산업부
8. 4	PC 행망·교육망 조달 부서장 회의	삼성전자, LGIBM, 멀티캡, 삼보컴퓨터, 대우통신	정보산업부
8. 5	PC업계 수출(기획) 담당부서장 회의	삼성전자, LG전자, 대우통신, 멀티캡	정보산업부
8. 6~8. 7	회원사 생산 현장 방문	한국고덴시, 삼화기연, 동아X선기계 등	가전산업부
8. 10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 공청회 참가		가전산업부
8. 11~8. 14	KES '98 참가업체 회의	전자전참가업체, 오성전자 外 300여개사	국계부
8. 12	전자부품산업 수출증대 방안 조사연구관련 협의	전자부품연구소, 산업자원부, 한국과학기술원 등	가전산업부
8. 12	신산업 발전위원회 1차 회의	(산업자원부)	가전산업부
8. 13	회원사 생산현장 방문	정화, LG마이크론	가전산업부
8. 13	품질보증기간 단축 관련 업계 임원 회의	(팔레스호텔 2층)	가전산업부
8. 14	근접센서 표준화 회의	대우전자서비스 송정웅 사장 등 5명	부품산업부
8. 17	자기미디어협회 수출 부서장 회의	오토닉스, LG하니웰, 한영전자 등	부품산업부
8. 18	전자부품 산업 수출증대 방안 관련 실무 작업반 회의	코오롱, SKC, 새한미디어, LG전자, SKM	부품산업부
8. 19	전해콘덴서 표준화 회의	산자부 등 설문조사	부품산업부
8. 20	HFC 등 온실가스 저감방안 대책회의	삼화전기,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대우전자부품(주), 삼영전자공업(주), 삼성전기(주)	부품산업부
8. 20	행망용PC 조달 담당 부서장급 회의	LG전자, 대우전자, 삼성전자 등	가전산업부
8. 20	제2차 전자 재고부품 할인판매전 사전회의	삼성전자, LGIBM, 삼보컴퓨터, 멀티캡, 대우통신	정보산업부
8. 20	예치금 반환업무 개선대책 마련회의	삼성전자 등 19개사	부품산업부
8. 25	행망용PC 조달관련 중앙보급창장과의 면담	대우전자, 삼성전자, LG전자	환경과
8. 26	모니터 수출분과 위원회 회의	대우통신, 삼성전자, LGIBM, 멀티캡, 삼보컴퓨터	정보산업부
8. 26~9. 3	AEU 활동 증대위한 해외출장	(호주, 필리핀)	국계부
8. 27	선진국 수입규제 범업계 대책회의	전자, 철강, 섬유, 반도체, 타이어, 유화, 제지 등 관련협회	국계부
8. 28	초음파 센서 표준화 회의	대원전자, 조방전자, 신창	부품산업부